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성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처처마다 부처고 도량이고 법입니다”

15면에서 계속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가 놓는 대로 화해서 바뀌지 때문에 천백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내 마음, 몸, 가정, 식구, 법당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와서 정진하고 정성들이고 하는데 있어서 자주 와서 마냥 살다시피 한다면 스님네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님네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내 가정 이요, 그 사람들이 나오, 그 아픔이 내

겁니까”하고 물으니, 또 어떤 선지식은 벌떡 내려와서 그냥 맥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죽겠다”고 하니 “아이구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외울 만치 읽었다 하더라도,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 냈든 잘 냈든 바로 내가 걸음을 걸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못 냈든 잘 냈든 자기만이 자기를 걸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돌 아나게 다잡아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소.

춧불이 켜져 있는데, 춧불 심지가 비틀어졌든가 한다면 심지가 비틀어졌으니까 불도 비틀어져 초가 한편으로만 타 가지고 촛농이 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서 비틀어졌다면 잘라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불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곧고 밝게 잘 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틀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서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초심지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야 하는 뜻에서, 소가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에 막 들어가서 짓밟으면 안되니까 고삐를 잡고서 똑바로 길을 가가라 했던 거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살림을 윤곽하게 잘 해 나가려는 것도 그렇고 회사도 나라도 역시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신도 한 분이 남의 돈을 받아 나 열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람이 됐으니까 보란 듯 목이 뻗뻗하게 굴어졌던 말입니다. 또 사장이 되고 나니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보니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하다보니,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회사가 몽땅 남의 손에 넘어가고도 사는 집까지 다 날

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 치의 예누리 없어.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병은 고쳐질 수 있을 지언정 ‘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뀔 겁니다.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데 더욱 열심히 잘 하

자 어떤 때는 소용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에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겁고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하면서 잘못했던 지 잘못했는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니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식도 인연에 따라서 남았는데 자식이

여러분 중에 가족들간에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을 저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증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되어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닌 줄 안다면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며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훗날이 이리저리 흘러도 안도록 초심자를 다스리면서 잘 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하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혹 빌 것 아닌 말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것 아닌 곳 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청정심이라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추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악심들이 나올 수 있던 말입니까?

마음을 관하여 지난 일들을 뒤우치기도 부족할수록 튀어나오는 악심에 저는 헤매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믿고 저주스럽습니다.

크스님!
모든 중생심이 저의 현실과 비슷한지요?

이제 이쪽 수양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저의 마음이 중생을 못 잡으니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사회에 나간다면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스님!

저의 이 조그만 사연이 크스님전에 닿으리라 믿고 미려한 중생을 위해 앞으로의 마음 진로에 대해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일하고 밥먹고 잠자고 하는 일거수일투족에서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라고 믿는 그 ‘나’와 처사님이 티끌 하나 묻을 데 없이 청정하다고 하는 주인공 자리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도 하고 스님께 여쭙어 보라고도 하십니다.

제 마음은 이기의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의 나뭇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그렇게 믿어야 하겠지요.

내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분별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부터 주인공 자리에서 들고 납니다. 말하자면 나무의 잎과 가지는 뿌리의 힘을 받고 뿌리의 힘에 의해 지탱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들인다 안 들인다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아이를 갖는 문제까지도 주인공을 믿고 그 자리에 놓고 맡기는 게 우선적입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믿고 맡기는 마음이 나의 근본

좋은 아기를 갖고 싶어요

문 결혼한지 4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꼭 아기를 갖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기가 생기는 것도 생기지 않는 것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른들께서는 모두들 걱정이 대단하십니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도 하고 스님께 여쭙어 보라고도 하십니다.

제 마음은 이기의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의 나뭇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그렇게 믿어야 하겠지요.

내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분별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부터 주인공 자리에서 들고 납니다. 말하자면 나무의 잎과 가지는 뿌리의 힘을 받고 뿌리의 힘에 의해 지탱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들인다 안 들인다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아이를 갖는 문제까지도 주인공을 믿고 그 자리에 놓고 맡기는 게 우선적입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믿고 맡기는 마음이 나의 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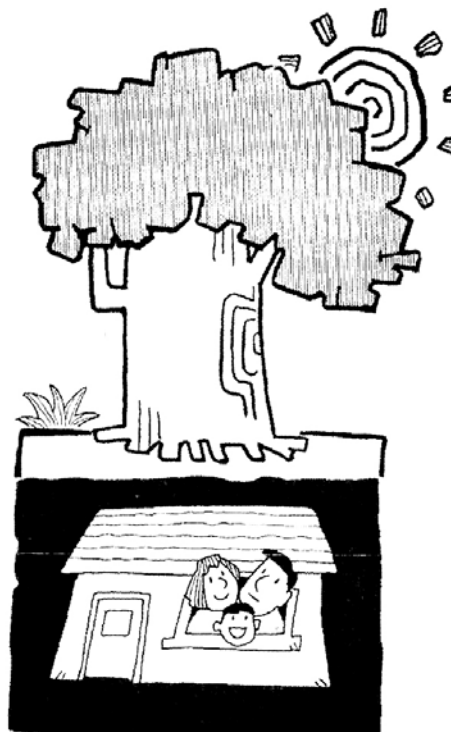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의 탓으로만 돌려 비판하니 한마음 안돼” “초의 심지 바로잡듯 비뚤어진 마음 다스려야”

렸습시다.

이런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해 나가는 일에 지나 깨나 오직 정신을 거 거기 두고서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며 다른 사람도 돌봐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 버림받고 또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고 국법세 법법세도 못하고 벌레가 돼서 산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놓고 기도하고 이게 된 것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된 뜻입니까? “불법이 어떤

아 될 것입니까. 그냥 대중 이렇게 얘기 하지만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면 빙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풀라야지, 풀어서 모르면 안됩니다. 알고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든지 정신을 한담시고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해 주시오’ 하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무조건 믿고 거기서만 이 할수 있다, 한다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풀어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빛’이기 이전,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관세음”은 관해 보고 이 세상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기에 관세음이라고 이름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아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렇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가 즉 관세음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듣고, 내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완벽하게 자기가 있다 하면 이 몸 속에 들은 의식, 업식이 한 데 합쳐져서 큰 에너지 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로 어떻게 다 하니까, 말해

잘못하면 ‘저 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제 애미를 닮아서 저렇지’, ‘제 어머니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싹을 망쳐놓는 겁니다.

부부기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기간도 그렇고, 위로는 목은 빛을 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배움에 의해서 종교의 진의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게 빌기 위해서, 산 기도를 백일을 한다, 절을 천 번 한다 하는데 몸으로 천번 절할 것을 마음으로 문쳐서 일정례를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돌 아나게 한다면 한번 하는 것보다 일백 배 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이 털구멍을 통해서 수없이 들고 납니다. 이거 아시죠. 약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미워하면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중요됩니다. 그러니까 돌이 아니기에 돌이 아니게 여기에서 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밝게 불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며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며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모든게 내 탓이야’ 하며 잘못을 뒤우치게 할 수가 있죠.

뿌리며 닿을 때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우주가 들쭉거립니다. 깊이 관해보시도록 하세요.

왜 악심이 생립니까

문 평상시에 나오는 마음 속의 악심도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억겁을 지내오며 자신이 지었던 업의 재생 테이프에서 나오는 것 일까요?

저는 이곳 수양지에서 지난날 수행했던 저의 모습을 정확하고도 노력하는 주인입니다. 여태껏 종교란 것을 모르고 자신의 절난 맛에 멋대로 살아오다 이번엔 인연이 닿아 부처님의 도리를 공부하고 있는 미련한 중생입니다.

크스님! (한마음 요건)이란 책을 읽기 전에는 모든 것을 보살이 저의 주위에,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밖으로만 지난날의 잘못을 뒤우치는 미련한 중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크스님의 마음 도리를 친견하고는 ‘일체유심조’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 공부에 전념하고자 하는 이 중생이 무엇인가 미심쩍어 감히 편을 들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모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가 주인공 자리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저의 좁은 시선으로는 주인공 자리는 본래 티끌 하나 묻을 곳

왜 주인공은 청정함에도 악심이 나오느냐 하시는데 주인공 자리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말이 붙일 않습니다. 주인공 자리는 저 바퀴의 심봉과 같아서 예니지를 배출해 줄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기름을 넣고 엔진을 돌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힘을 배출해주는 기름과 엔진은 운전수가 하기에 따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지 제 스스로 이리 저리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자리는 일체를 이루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돌릴 줄 알아야 하지요.

내가 여러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안되는 일은 ‘주인공 잘 되게 하는 것도 나 밖에 할 수 없어’ 하고 되돌려서 놓고 잘 되는 일은 ‘주인공, 감사해’ 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방편 삼아서 일러드리는 것인데 이게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따지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놓고 맡기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아하, 이래서 이런 말도 한 것이로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맛을 보게 되면 그때는 공부가 저절로 익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미련한가, 왜 이런 악심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탓을 하시기 보다 다택는 대로, 나오는 쪽쪽 ‘주인공 나 밖에 없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놓으세요.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은 전자에 내가 그런 마음을 자주 먹었던 때문인데 그걸 지우고 녹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십니까?

저 녹음된 테이프를 지우려면 다시 새 것을 녹음하던지 아주 무심이 되어서 지우던지 해야 하겠지요? 이 주인공 공부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택는 대로 놓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경물도 바뀌어 새 물로 쓰는 도리가 있습니다.

협찬 오병주

어서이론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많은 도반은 병통입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와 '대행 스님'이 나누어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철저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빛어낸 깨달음의 흐름입니다.

이 책이 소개된 300여 항목의 질문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부터 148호(97.9.20)까지 갈을 끝낸 이후에 1년에 1번씩 나왔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편집
부서 404호
어서이론 편집
김 5000번

이 책이 소개된 300여 항목의 질문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부터 148호(97.9.20)까지 갈을 끝낸 이후에 1년에 1번씩 나왔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어서이론 '물음 반 천여 개의 어근남도 없이 전라했다'는 정신으로 사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